



## 미국의 원칙중심 책임준비금 제도(PBR) 도입 추진현황

이아름 연구원

■ 미국 전미보험감독자협회(NAIC: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)는 생명보험 상품의 준비금 제도를 규정중심 책임준비금 제도(Rule-Based Reserving)에서 원칙중심 책임준비금 제도(PBR: Principle-Based Reserving)로 변경을 추진 중임.

- 보험상품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규정중심 책임준비금 제도는 각 상품의 준비금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,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칙중심 책임준비금 제도(PBR) 도입이 진행되고 있음.
- PBR은 미국이 2008년 6월부터 추진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 작업(SMI: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)<sup>1)</sup>의 일환으로 NAIC는 2015년이나 그 이후부터 PBR을 시행할 예정임.

■ 2009년 「표준책임준비금 모델법」<sup>2)</sup>이 개정되면서 생명보험 상품의 새로운 준비금 제도인 원칙중심 책임준비금 제도(PBR)가 발표되었고 2013년 7월 PBR 도입 계획(implementation plan)이 수립됨.

- NAIC는 PBR 도입을 위해 「표준책임준비금 모델법(SVL)」에 수록된 가치평가매뉴얼(Valuation Manual)을 2012년 12월 최종 확정하였고 그 후 2013년 PBR 도입 계획이 마련됨.
- 「표준책임준비금 모델법(SVL)」에 따라 마련된 가치평가매뉴얼은 PBR의 보험종목별 준비금 산출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.
  - 생명보험, 연금보험, 적립식 계약(Deposit-type contracts), 건강보험, 신용생명 및 장애보험, 특약 및 부가급부(Riders and supplemental benefits), 기발생보험금 지급준비금(Claim reserves) 등 보험상품별 최저준비금 요건이 제시됨.
- PBR 도입 계획은 PBR 개념 도입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 해결을 위해 법안

1) NAIC는 자기자본규제, 지배구조와 위험관리, 그룹감독, 감독회계 및 재무회계, 재보험 등의 의제를 설정하여 작업반을 운영해왔으며 PBR은 감독회계 및 재무회계 의제로 분류됨.

2) SVL: Standard Valuation Law(Model #820).

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「표준책임준비금 모델법(SVL)」 개선 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
- 향후 미국 총보험료의 75%를 차지하는 최소 42개 주가 개정된 「표준책임준비금 모델법(SVL)」을 채택할 경우, 미국 생명보험회사는 신계약에 한해 PBR을 약 3년 기간 동안 도입할 것임.
  - 2014년 현재까지 미국의 9개 주가 「표준책임준비금 모델법(SVL)」을 채택하였음.

■ PBR은 규정중심 책임준비금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준비금 산출 제도로서 기존의 제도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짐.

- 현재 규정중심 책임준비금 제도의 공식(formula)은 규정된 가정과 방법론만을 사용하는 반면, PBR은 이를 보완하여 다양한 가정(assumptions)과 공식에 의해 준비금이 산출됨.
- PBR은 다양한 위험요인에 따라 산출되고 각 보험회사마다 특정 위험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특정 평가방법을 사용함.
  - PBR의 위험요인에는 가입자의 행동, 사망위험률, 금리리스크, 채무 불이행, 사업비, 계약상 보장 지수 관련 리스크 등 보험회사의 경험 요인들이 포함됨.
  - 다양한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명성과 세부정보가 요구됨.

■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로드맵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- 우리나라에서도 표준이율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2012년에 있었으나 중단되었음.

(NAIC 등)